

대형사고*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내가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시기는 2년 5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79년 가을 3학년으로 복학하여 불투명한 장래를 걱정하면서부터였다. 그 또래의 고만고만한 생각을 주워 담았다가 버리고 하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공부보다는 궁금한 것을 스스로 밝혀 보는 노력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서양 사회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의 계급구조는 어떻게 짜여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는 무엇이고, 시장경제의 경쟁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다.’는 내용은 모두 하나같이 서양을 준거로 한 것이었고, 많은 경우 교재는 영어로 된 원서였다. 학부

* 이 글은 『인문학 @ 미래를 여는 길』(연세대문과대학교수 30인, 전통과현대, 2001)에서 류석춘 교수의 글을 재수록하였습니다.

생활 초반부에는 우선 영어로 된 원서가 주는 중압감에 시달려야 했고, 후반부에는 사회과학에서 자주 쓰이는 현학적 용어(jargon)의 빈번한 출몰에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 용어가 서양 역사의 깊숙이 숨겨진 곳에서 끌어 올려진 경우 내 빈약한 상상력은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을 맛볼 뿐이었다.

당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원서 5쪽의 내용을 소화하지 못한 채 수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진아’였다.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교수님의 눈길을 피하며 강의실의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일이었다. 이런 대학생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 보겠다고 어쭙지 않은 ‘방황’이 시작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의 방황에 약방의 감초같이 따라 다니는 ‘술, 담배, 이성’을 나는 이 기회에 완전 마스터하며 ‘지진아’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보고자 발광하였다. 그리고는 군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도망간 군에서 나는 뜻하지 않게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가장 확실한 배움은 대학에서 어렵게 읽던 원서의 내용이 한국의 현실, 특히 군이 관련되어 있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경험으로 확인한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발적인 결사체보다 관변단체가 중요하고, 자유경쟁이 아니라 정경유착이 지배하고 있으며, 계급의식보다는 연고주의가 사람들의 선택을 좌우하고 있는 것을 나는 생생히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로 돌아온 나는 제법 의젓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서양의 학문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

었다. 서양적인 개념과 논리의 전개가 나에게 ‘장애’로 다가올 때 나는 그것이 왜 그럴 수 있는가를 이제는 정면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 나를 ‘지진아’로 만들던 것들에 대해 정정당당히 도전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반항하였다. “내가 영어를 서양 사람보다 못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원서의 필자보다 못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서양 역사로부터 비롯된 개념과 논리 체계를 손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지진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내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대학생활의 한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밀려나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졸업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장래는 희색빛으로 불투명하기만 하였고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좌절의 시간을 맞이하여 나는 이런저런 가능성을 저울질하느라 세상의 문턱을 맴돌며 물고기같이 입질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의 우연과 하나의 필연이 결합하면서 다가왔다.

하나의 우연이란 미국의 대학원에서 날아온 합격을 알리는 편지였다. 하나의 필연은 군 생활의 경험이 제공해 준 한국 사회에 대한 실질적 이해였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나는 ‘내가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을 공부해야겠다.’는 오기와 만용을 부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오기와 만용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존심 덕분에 고생길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공부’라는 엄청난 일을 시

작하였다. 결과에 대한 자신감의 결핍을 오기로 보충하며 버틸 요량을 한 것 이외에는 다른 뾰족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내가 궁금한 것을 스스로 밝혀 보겠다.’는 나의 당시 신념을 지금의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엄청난 ‘대형사고’를 친 일이었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일을 차례대로 풀어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선 서양의 문물을 제대로 배우는 소위 ‘근대화’ 과제를 수행해야 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서양과 다른 이유를 밝히는 ‘주체’의 문제를 해명하는 일이다. 그래서 ‘근대화론’으로 시작된 나의 공부는 ‘종속이론’으로 이어졌고, 다시 종속이론의 뒤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와 이를 비판한 ‘베버 Max Weber’ 등으로 넘어가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길로 연결되어 갔다. 다른 한편 ‘왜 한국 사회는 다른가?’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했고, 동시에 서양과 남미 그리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는 작업을 하며 끊임없이 이론과 사실을 재구성해야 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이다. 중간 중간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때려치울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아무도 모르는 순간의 오기와 그 오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존심을 남몰래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없었던 일로 해 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람을 느낄 때도 없지 않다. 모자라는 논문이지만 고민하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 발표할 때마다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 그것이다. 특히, 작은 내용이라곤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거꾸로 공부한 보람을 재확인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오기 덕분에 나는 뜻하지 않게 모교의 교수가 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기도 했다.

지금 학부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대견한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내가 겪어 왔고 또 현재 겪고 있는 좌절과 성취의 사이를 오가며 그들은 그들 나름의 ‘대형사고’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오기’는 어찌면 필요악일지도 모른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 동기가 어찌되었건, 그것이 나의 경우와 같이 군 생활을 거치며 우연히 얻게 된 산지식일 수도 있고, 또한 80년대 식의 치열한 운동의 산물일 수도 있으며, 혹은 더 가까이 90년대 식의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되는 ‘오기’와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는 결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Profil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등이 있다.